

주일 예배 2026년 10월 1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찬송가 621(신)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76 번(요한복음 1 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찬송가 528(신) 318(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히브리서 6 장 1-6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어디쯤 와 계신가요?**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찬송가 488(신) 53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참 많이 복음에 대해 들어왔고 나름 참 오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시작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얼마만큼 앞으로 걷고 혹은 뛰어왔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초를 다시 놓는 데 머물지 말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2.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기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맞본 경험조차 신앙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과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완전한 데’란 어디일까요?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하나님도
열심을
내십니다

사 9:7
고후 11:2-3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왜 그토록 열심을 내시는 것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경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에 등을 돌리고 살아도 될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과 그분의 열심은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볼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맙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고 삶을 실제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아직 우리 안에서 충분히 살아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멈추거나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려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바라봅시다.

생명샘소식

1.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 10월 24일 토요일 각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한 목자 모임을 10월 18일 주일에 갖습니다.
4. 10월 25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 제직성경읽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꼭 깊이 간직하셔서 말씀의 종으로서의 충만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해 주신 한광기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6. 오는 저녁 6시에 최명희 권사님(권사 합창단/레익뷰 언약교회) 연주회 있습니다.

10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장미혜(4)	조창(11)
	박승화(18)	한광기(25)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히브리서 6:1-6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어디쯤 와 계신가요?

신앙의 기초를 넘어 성숙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

히브리서 6:1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1 오래 머문 것과 나아온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복음을 들어왔고, 나름 참 오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시작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얼마만큼 앞으로 걷고 혹은 뛰어왔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초를 다시 놓는데 머물지 말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6:1)

2 중요한 것들이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례들,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기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맞본 경험조차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과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1-5)

3 그러면 도대체 ‘완전한 데’란 어디일까요?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더 경건한 모양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오래 믿어 왔고, 많은 것을 경험해 왔다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출발점을 도착점으로 착각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6:1-6)

오늘 우리의 결단

내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바라보며, 나의 걸음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겠습니다

신앙의 기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

히브리서 6:1